

GIST, 한국화 거장 허달재 작가와의 대화 열어

- 3월 27일(목) 오후 4시 30분, GIST 오룡아트홀에서 한국 전통 미술의 현대적 해석으로 '신(新) 남종화' 대표하는 직현 허달재 작가의 예술 세계 조명
- 한국화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깊이 이해하고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... 사전 신청자 대상 GIST 굿즈 증정 이벤트도 진행

GIST 작가와의 만남

화폭 위의 시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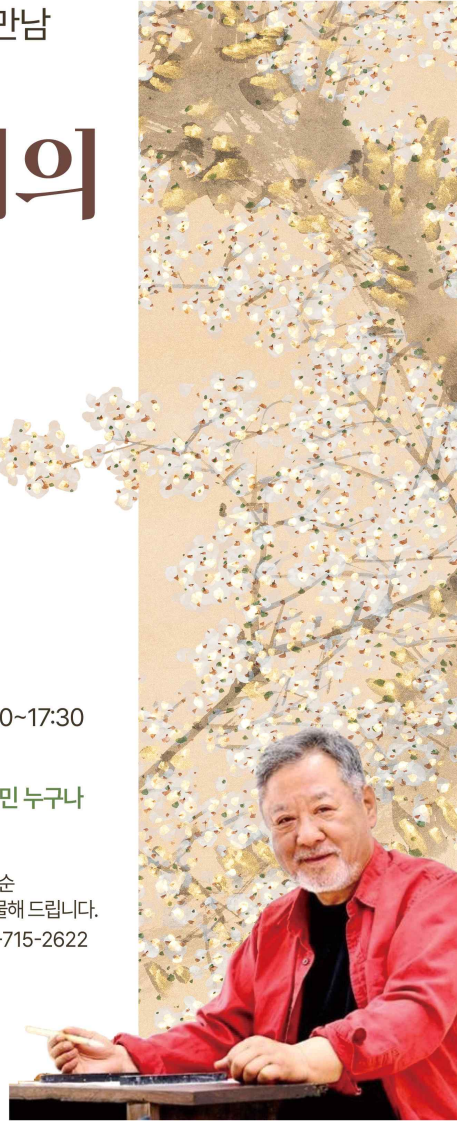
직현_{直軒} 허달재가
들려주는
신_新 남종화 이야기

2025. **03. 27.** 목 16:30~17:30
GIST 오룡관 1층 다목적홀
GIST 구성원 및 관심있는 지역민 누구나

사전접수 QR을 통한 사전 접수 선착순
20분께 지스트 굿즈를 선물해 드립니다.
문 의 **GIST** 아카데미 T.062-715-2622



사전접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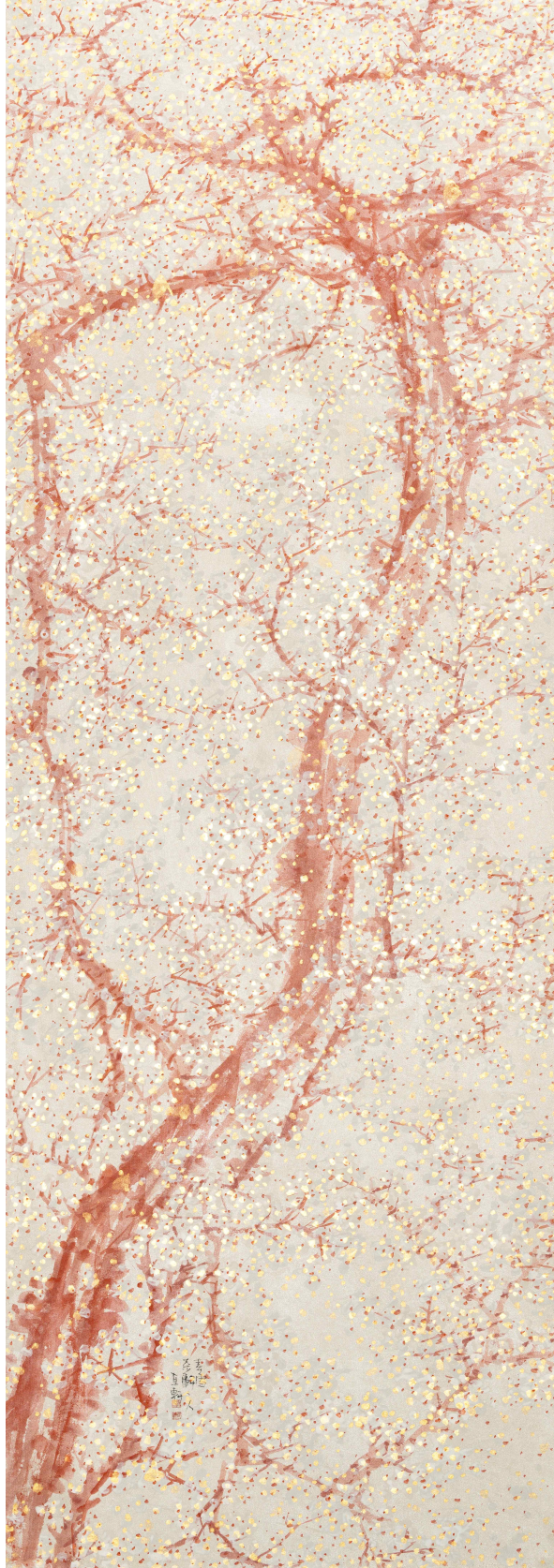


▲ '화폭 위의 시(時) - 직현 허달재 작가와의 만남' 포스터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오는 3월 27일(목) 오후 4시 30분 **오룡아트홀에서 한국 남종문인화의 맥을 잇는 허달재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**

허달재 작가는 한국 남종문인화의 거장 **의재 허백련 선생의 손자로,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한 신(新) 남종화의 대표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.**

이번 행사는 남종문인화의 전통과 현대적 해석이 어우러진 허달재 작가의 예술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하는 자리다. 전시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, 작가의 철학과 창작 과정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나누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.



▲ 백매(White Plum Blossoms) 2015, 75x212 한지에 수묵 채색

또한 **신 남종화의 독창적인 매력과 동양화가 지닌 선(線)과 여백의 미학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, 예술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스며들어 감동을 주는 지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기회**가 될 전망이다.

남종화(南宗畵)는 동양화의 한 갈래로, 문인들이 수묵을 활용해 사의(寫意)를 중시하는 화풍이다. 신 남종화는 이러한 전통적 기법을 현대적 시각 언어로 재해석한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으며, **허달재 작가는 이를 독보적인 예술 세계로 발전시켜 왔다.**

광주 출신인 허달재 작가는 할아버지 의재 허백련 선생에게 서화를 사사받으며 남도의 예맥을 이어 왔다. 그는 1987년부터 뉴욕과 파리에서 초대전을 열며 한국 미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렸으며, **최근 제66회 3·1문화상 예술상을 수상하는 영예**를 안았다.

김재관 GIST아카데미 원장은 "남종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허달재 작가와의 만남이 지역 예술계에 큰 의미를 더할 것"이라며, "이번 행사가 **지역 문화예술의 가치와 깊이를 전달하고, 예술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**"고 말했다.

이번 행사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**사전 신청을 완료한 선착순 20명에게는 GIST 굿즈가 증정되는 특별 이벤트**도 진행된다.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IST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한편, 오룡아트홀은 GIST가 조성한 열린 문화예술 전시 공간이다. 2022년 12월 첫 전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**총 14회의 전시를 개최하며, 수준 높은 문화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문화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.**